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장가*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다운타운과는 그리 멀지 않고 지하철 같은 것을 타면 20분쯤 걸렸던 것 같습니다.</p> <p>규모는 우리 학교보다는 작지만 시설은 좋습니다.</p> <p>다국적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오피스에 계신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셨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p>
수업	<p>저희 15명이 함께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9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이뤄졌고 중간에 15분 쉬는 시간과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p> <p>수업은 바인더 한 권을 토대로 주마다 큰 주제를 달리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문화차이 등을 배웁니다. 매일 2~3명씩 영어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 있으며 한 가지 주제(여행 계획 짜기 등)로 조별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p> <p>과제는 5분 이내에 끝나는 간단한 것이었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널에 간단한 주제로 자신의 의견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저널을 제출하면 선생님께서 읽어보시고 고쳐주시고 저희에게 되돌려줍니다.</p>
Activity	<p><학교에서 간 Activity></p> <p>밴쿠버 박물관 - 정말 지루할 틈이 없었다. 미술관 같은 느낌으로 내 머릿속에 박물관 이미지를 한 번에 바꿔주었고 시간이 아주 잘 갔다. 정보도 많고 예쁘기까지한 인생 박물관!</p> <p>그랜빌 아일랜드 - 퍼블릭 마켓에는 공장에서 나온 것들보다는 직접 기르고 만든 신선한 것들이 전부였다. 활동을 마치고 딸기, 블랙베리, 라즈베리등을 사서 돌아갔다. 가격도 저렴했고 한참 과일이 많이 먹고 싶었을 때라 매우 좋았다. 액티비티는 3시에 끝났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을 더 둘러봤다. 예술품, 악세사리 등이 많지만 디자이너들이 직접</p>

	<p>만들고 팔아서 비싸다. 해 질 무렵쯤 요트?들이 있는 바다쪽으로 돌아보면 물위에 비친 모습이 참 예뻐다.</p> <p>컬링 -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스포츠일 것이다. 정말 흥미로운 스포츠였다. 아이스링크장? 안에서 하기 때문에 장갑과 따뜻한 옷을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밴쿠버 아쿠아리움 - 스탠리 파크와 매우 가까워서 아쿠아리움 활동이 끝난 후 물가를 걸으며 산책을 했다.</p> <p>스노우 슈잉 - 설산을 오를 때는 정말 힘들어서 그만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올라가보면 눈 덮힌 자연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만족하며 내려오게 된다. 눈이 엄청 쌓여있으니 젖지 않는 신발과 편하고 따뜻한 복장과 목도리, 젖지 않는 스키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챙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p> <p><개인적으로 한 Activity></p> <p>캐나다 플레이스 - 낮에는 바다건너 있는 눈이 덮힌 산이 장관이고, 밤에는 야경이 정말 예쁘다. 플라이오버라는 4D체험을 할 수 있는데 (약 20달러 정도) 개인적으로 비추</p> <p>개스타운 - 기념품 샵이 많지만 비싸다. 15분에 한 번씩 소리를 내는 스팀클락을 볼 수 있다. 맛 집이 많다. 여러 번 방문한 곳</p> <p>그라우스 마운틴 - 입장료 40달러정도, 눈썰매 5달러 꿀잼이었다. 너무너무 예쁜 밴쿠버의 야경을 볼 수 있다.</p> <p>카필라노 -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관광지였다.(약30달러) 캐나다 자연환경은 정말 경이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p> <p>빅토리아 - 버스타고 페리타고 버스타고 긴여정이 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한다.(교통비 - 페리 40달러, 버스5달러) 왕복 6시간정도이다. 하지만 꼭 가봐야 할 곳인 것 같다.</p> <p>밴쿠버 아트갤러리 - 원래 24달러 정도이지만 화요일 5시이후로 기부데이여서 5달러에 입장가능하다. 4층 규모의 갤러리로 2~3시간정도 소요</p> <p>쇼핑 - 맥아더 글렌 아울렛, 메트로타운, 다운타운 허드슨베이, 퍼시픽 센터, 오크리지 몰 등</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밴쿠버 겨울의 다른 이름은 레인쿠버라고 합니다. 이름대로 자주 비가 왔어요. 첫 날 날씨는 괜찮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동안 비가 내렸어요. 두 번째 주에는 날씨가 다시 좋았습니다. 마지막 주도 날씨가 좋았지</p>

	<p>만 마지막 이틀은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날씨는 한국보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p> <p>벤쿠버의 날씨는 변덕이 심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기 위해 매일 일주일 날씨를 확인해서 계획을 날씨에 맞게 변경하기도 하고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원래 마지막 주에 계속 비소식이었는데 날씨가 해랑 구름으로 바뀌어서 좋았습니다.</p> <p>구름이 끼는 날에는 작은 우산 하나 들고 다니는 것을 추천해요</p>
안전	<p>스탠리 파크에 다녀온 2~3일 후에 그곳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너무 늦은 밤만 아니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홈스테이는 어떤 집으로 가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일단 매우 좋았습니다. 타운하우스라고 불리는 형태의 집이었고 복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창고와 주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습니다.</p> <p>저는 은퇴하신 할머니 한 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은퇴 후 강아지를 조련하시면서 고객들의 개를 집에서 맡아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 빼놓고 개 2마리 정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개들도 훈련이 되어있어서 저를 잘 따랐습니다. 애완견이 있어서 인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p> <p>대부분 한국보다 이른 시간에 취침하기 때문에 몇몇 다른 분들 홈스테이는 샤워해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했지만 저희 집은 딱히 그런 제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같이 긴 샤워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p> <p>조금 춥기는 했지만 춥다고 말씀드렸더니 담요를 주셨습니다. 피부 건조해 지신다고 방에 히터를 틀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 가지 빼고는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집이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p> <p>아침은 계란, 딸기잼, 식빵, 바나나 하나가 기본적이었습니다. 점심은 전날 저녁에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것이 매우 보편적이었습니다. 저녁은 항상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성이 좋아서 3가지 정도 빼고는 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메뉴는 두가지정도 제시해주시면서 제가 선호하는 걸 고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대부분이 정말 맛있고 건강한 식사였습니다!</p>

	<p>메뉴는 수제 햄버거, 파스타, 스파게티, 중국음식(할머니께서 중국계 캐나다인이셨습니다), 가끔씩 쌀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p> <p>사전 홈스테이 설문지에 솔직하게 표기하세요. 홈스테이에 가보니깐 할머니께서 제 식성을 다 알고 있었고 대부분 그에 맞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는 것은 한인마트에 같이 가서 사주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표시하지마세요, 홈스테이에서 미리 준비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먹지 않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낭비를 되게 싫어하셔요)</p> <p>첫 주에는 저녁을 매일 밖에서 먹고 들어갔는데 두 번째 주부터는 되도록 집에서 먹었습니다. 거한 식사는 많이 비싸구요, 보편적인 식사는 한국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양도 꽤 많아서 4명에서 3가지 시켜서 나눠먹었습니다.</p> <p>혹시나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것을 좋아하신다면 몇 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 좀 비싸긴 해도 사서 먹지만 불닭볶음면은 더 비쌌습니다. 매운 음식을 즐겨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매콤한 것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햇반도 2~3개쯤 챙겨가는 것을 추천해요. 대부분의 쌀밥이 입에서 날아다니는 밥이기 때문에 촉촉한 밥이 조금 그리울 수 있어요.</p>
교통	<p>저는 버스 2개를 타고 다녔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40분정도 걸렸습니다.</p> <p>학교에서 배부해준 Monthly compass카드를 이용해서 학교 끝난 다음에도 버스나 sky-train을 이용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p> <p>다만 2월 달 4일간은 통학만 가능한 1일 권을 줍니다. 그 이외에는 개인이 지불해야합니다. 환승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면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쇼핑, 액티비티비용 (그라우스마운틴, 플라이오버, 각종 입장료)	약 55만원	사고 싶은 것이 많았음
음식값	약 20만원	

교통비 (+페리)	약 5만원	
합계	2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600달러를 환전해갔는데 마스터카드 만들 여간걸로 약 200달러정도 추가로 굶었던 것 같습니다. 없어질 위험도 있으니 600~800이 넉넉하고 좋은 환전금액인 것 같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그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500~900정도 쓰신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도자기로 된 한국 전통인형 한 쌍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날 랑가라 현지 친구들에게 줄 열쇠고리 같은 것도 준비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랑가라 친구들 을 만날 거의 없어서 괜히 가져갔다 생각했지만 마지막 주에 밖에서 좋은 인연들을 많 이 만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고 서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었습니 다.

보조배터리 꼭 가지고 오시고 구글지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도에서 최단 거리로 알려줘서 간혹 지도가 산길을 알려줄 때가 있으니 이상하다 싶으면 큰길로 나가 보세요.

학생 할인되는 것이 있으니 학교 학생증이나 국제 학생증을 챙겨가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정말로 좋은 사람 많이 만났고 절대 잊지 못할 경험 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를 계속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잘 안되더라도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니깐 느는 것이 느껴졌고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 서 교환학생도 지원해서 더 큰 것들을 배워오고 담아오고 싶습니다.

3주간의 어학연수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홈스테이였습니다. 저희 홈스테이 할머니께서는 엄청나게 활동적하시고 말하는 것도 좋아해서 저랑 아주 잘 맞았습니다. 가끔은 친구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는 날이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대해 1시 간은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다이어리를 선물해 주시고 매일 영어로 일기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식탁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할머니께 서 문법을 봐주셨습니다. 제가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쓰면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어휘들 을 다이어리 뒤편에 적어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저의 쓰기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 셧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께서는 저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며 제가 특별한 계획이 없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쇼핑타운을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할머니랑 쇼핑도 같이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사주시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 다. 홈스테이라고 해서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정을 나누고 교육적으로 값진 도움을 주신 우리 할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밴쿠버의 버스기사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 갈 때 기사아저씨께 여쭙봤더니 앉아서 기다리면 제가 내릴 곳에서 불러주신다고 하며 친절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겨울방학 3주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고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막연히 열심히 하겠다는 것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캐나다 플레이스</p>	<p>빅토리아</p>
	
<p>홈스테이 할머니랑 첫 날, 메트로타운</p>	<p>개스타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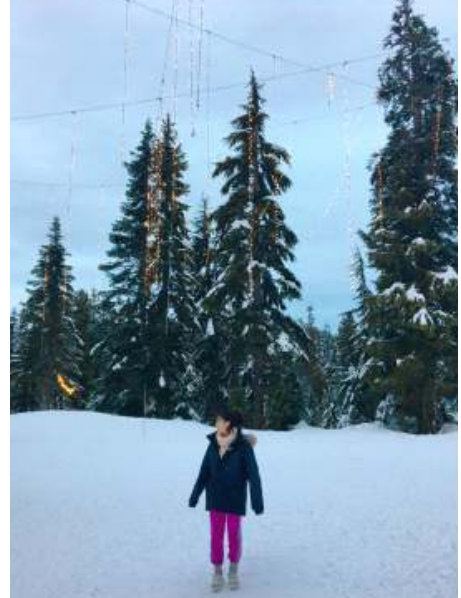
뮤지엄 오브 벤쿠버



벤쿠버 아트갤러리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그라우스 마운틴